

## 인과의 두 개념, 설명, 그리고 도덕적 책임

이재호<sup>†</sup>

현대 영미 분석철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과 이론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다수의 철학자들은 이런 이론들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몇 개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J. 쉐퍼와 N. 출의 이런 주장을 검토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인과 이론의 구분을 받아들일 경우 이 구분은 인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다른 개념들, 특히 설명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추적한다. 이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의존(또는 확률-증가), 설명, 그리고 도덕적 책임이 하나의 개념적 클러스터를 이루며 이 개념적 클러스터에 산출(또는 과정-연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리고 이 발견이 자유의지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주요어】 인과, 의존, 산출, 설명, 도덕적 책임

---

<sup>†</sup> 중앙대학교 철학과, jaeho.jaeho@gmail.com.

## 1. 서론

D. 흄의 영향력 있는 인과 분석 아래로 서양 철학계에서는 다양한 인과 이론이 쏟아져 나왔다.<sup>1)</sup> 이 현상에는 몇몇 주목할 만한 배경이 있다. 우선 흄의 인과 분석이 갖는 파괴적 성격과 그것이 (최소한 경험 주의자에게) 갖는 호소력은 그의 이론에 대한 격렬한 후계자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반대자들을 양산했다. 다음으로, 흄에 찬성하는 입장이건 반대하는 입장이건 인과 개념이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흄에 따르면, 인과는 모든 사실의 문제에 관한 추론의 기초가 된다.<sup>2)</sup> 더 나아가, 현대 분석철학은 인과적 설명 이론(과학철학), 인과적 지시 이론(언어철학), 인과적 지식 이론(인식론)<sup>3)</sup>과적 행위이론(행위이론), 인과적 결정이론(결정이론) 등 인과 개념에 호소하는 많은 소위 “인과적 이론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거의 모든 철학의 분야에서 인과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철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인과 개념에 대한 철학적 주목은 인과 이론의 양산으로 이어졌다.<sup>3)</sup> 인과 개념이 매우 중

1) 2009년 출판된 *The Oxford Handbook of Causation*의 편집자들은 표준적 인 인과 이론으로 5가지 이론, 즉 규칙성 이론, 반사실적 이론, 확률적 이론, 인과 과정 이론, 그리고 행위와 개입 이론을 나열한다. 이 다섯은 염밀히 말해서 단일한 이론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변종들을 가진 이론군(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표준 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다른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분석철학계에 얼마나 많은 인과 이론들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Beebe, Hitchcock & Menzies (2009), vii-viii.

2) 흄은 “단순히 관념에만 의존하지는 않는 이 세 개의 관계들[동일성, 시간과 공간의 상황, 인과] 가운데 우리의 감관을 넘어가 추적될 수 있고 우리에게 우리가 보거나 느끼지 않는 존재와 대상들에 대해 알려주는 유일한 것은 인과이다.”라고 주장한다. Hume, Selby-Bigge & Nidditch (1978), p. 74.

3) W. 새먼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새먼은 초기에 (즉, 그가 S-R 모델을 개발할 당시) 험펠의 영향을 받아 과학적 설명을 연구하는데 인과 개념

요한 개념이라는 것 외에도 인과 이론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 배경에는 인과 개념이 매우 논란이 많은 다른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사실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속성과 자연법칙에 대해서 합의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속성이나 법칙에 대해서 특정한 이론을 지지하게 되면 종종 우리는 그에 맞춰서 특정한 인과 개념을 지지해야 한다.<sup>4)</sup>

현재 분석철학계 안에 다양한 인과 이론이 범람하고 있으며, 그것이 충분히 이해될만한 현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들은 이 다양성 안에 뚜렷한 흐름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J. 쉐퍼는 “인과의 본성에 대한 주도적 설명들은 확률-증가(probability-raising) 견해와 과정-연결(process-linkage) 견해로 나누어진다.”라고 주장한다.<sup>5)</sup> 마찬가지로, N. 홀은 “사건들 사이의 관계로 이해된 인과는 적어도 두 개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상이한 종류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한다.<sup>6)</sup> 이런 현상은 철학자들에게 다양한 동기를 부여해 준다. 예를 들어 쉐퍼는 이 현상으로부터 확률-증가와 과정-연결 이론들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이론을 개발할 동기를 부여받는다.<sup>7)</sup> 반면에 홀은 이 동일한 현상으로부터 어떤 통일된 인과 이론을 제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인과 개념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개념들이 혼재된 통일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

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 후 인과적 설명이론을 주장하면서 설명 이론에 인과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인과 이론을 제안하게 이른다.

4)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Bird (2007), Lewis (1983), Shoemaker (1980).

5) Schaffer (2001), p. 75.

6) Hall (2004), p. 225.

7) 사실 쉐퍼는 이후에 자신이 제안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떤 단일한 환원적 인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포기한다. 쉐퍼의 모델이 갖는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Choi (2007), 최성호 (2014). 쉐퍼의 환원적 인과 이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Schaffer (2008).

것을 제안할 동기를 부여 받는다. 그리고 (필자를 포함하는) 어떤 철학자들은 이 현상으로부터 인과와 설명을 구분할 동기를 부여 받는다.<sup>8)</sup> 우리가 이 현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자체로 흥미로운 문제이지만 그것은 이 논문에서 필자가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아니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진 문제는, 우리가 선이론적으로(pre-theoretically) 인과에 대해서 가진 직관, 그리고 현재 철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과 이론들에서 쉐퍼와 홀이 주목하는 뚜렷한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그 구분되는 인과 개념들은 인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개념들, 특히 설명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추적을 통해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장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설명은 과정-연결, 또는 산출보다는 확률-증가 또는 의존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도덕적 책임은 인과 개념보다는 설명 개념에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과 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두 주장으로부터 도덕적 책임이 인과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홀의 주장처럼 의존도 정당한 의미에서 인과 개념의 하나라고 볼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인과와 설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과와 도덕적 책임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주장으로부터 도덕적 책임이 인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 역시 나오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설명과 인과는 다른 것이며, 설명은 의존에 인과는 산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위의 두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도덕적 책임은 인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이 논문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의존(또는

---

8) 인과와 설명의 구분을 옹호하는 입장들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것.  
Davidson (1967), Beebee (2004), 선우환 (2002).

확률-증가), 설명, 그리고 도덕적 책임이 하나의 개념적 클러스터를 이룬다는 것이며, 산출(또는 과정-연결)은 이 개념적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의존(또는 확률-증가)이 인과 개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의존-설명-도덕적 책임’이 하나의 개념적 클러스터를 이룬다는 사실은 자체로도 흥미롭다. 그러나 필자가 이 논문에서 이 사실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 사실이, 이 논문의 후속 논문에서 논의될, 자유의지에 관한 철학적 논쟁에 대해서 중대한 함축을 갖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필자는 이 사실이 자유의지와 관련한 강한 양립 불가능론(hard incompatibilism)을 옹호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sup>9)</sup> 강한 양립 불가능론은 (도덕적 책임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되는) 자유의지가 결정론과 양립 불가능하며, 자유주의적(libertarian) 자유의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강한 양립 불가능론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양립 불가능론을 우선 옹호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자유의지와 관련된) 자유주의(libertarianism)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논증되는 ‘의존-설명-도덕적 책임’ 클러스터를 받아들일 경우 양립 불가능론을 옹호하는 것도 용이해지고 자유주의적 자유를 공격하는 것도 용이해진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이후의 논의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절에서 필자는 쉐퍼와 홀의 논변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소개할 것이다. 3절에서 필자는 이들의 논변이 인과와 설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필자는 왜 설명이 의존(또는 확률-증가)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는지를 논증할 것이다. 4절에서는 2절과 3절에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도덕적 책임이 설명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5절에서는 왜 설명이 산출(또는 과정-연결)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듯한지가 설명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

9) 강한 양립 불가능론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D. 페레붐이다. 그의 견해는 다음을 참고할 것. Pereboom (2001, 2007).

3, 4, 5절의 결론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출발점을 귀결하는지가 설명될 것이다.

## 2. 인과에 대한 두 개의 접근

### 2.1 쇼퍼의 논변

앞서 소개된 바 있듯이 쇼퍼는 기존의 인과 이론이 크게 봐서 확률-증가 견해와 과정-연결 견해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확률-증가 견해에 따르면, 인과는 원인이 있을 때와 있지 않았을 때의 결과의 상대적 확률값에 기반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원인은 결과의 확률값을 올려주는 것이다. 반면에 과정-연결 견해에 따르면, 인과는 원인으로부터 결과에 이르는 연결적 선의 존재에 기반한다.<sup>10)</sup> 쇼퍼 자신은 확률-증가와 과정-연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만으로 충분하다.<sup>11)</sup> 확률-증가에서 핵심적인 것은 완전히 구분되는(wholly distinct) 두 개의 사건  $c$  와  $e$ 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  $P(E/C)$ 가  $P(E/\sim C)$ 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결정론적 인과에서 이 관계는 단순히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로 이해하면 된다. (이것이 쇼퍼가 루이스식의 반사실적 인과 분석을 확률-증가 견해의 하나로 본 이유이다.) 반면에 과정-연결 견해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건  $c$ 와  $e$ 를 연결하는 어떤 연속적인 물리적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과정-연결 견해는 W. 새먼이나 P. 도우, 또는 D. 얼링의 견해이다.<sup>13)</sup>

10) 쇼퍼에 따르면, 사실상 법칙적(nomological), 통계적(statistical), 반사실적(counterfactual), 그리고 행위자적(agential) 인과 설명들은 모두 비결정론적인 경우에 하나로 수렴하며, 따라서 모두 확률-증가 견해의 범주에 속한다. 반면에, 변화, 에너지, 과정, 그리고 전달(transference) 인과 설명들은 모두 과정-연결 견해의 범주에 속한다. Schaffer (2014).

11) 쇼퍼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Schaffer (2001), pp. 75-79.

12) 여기서  $C$ 와  $E$ 는 각각  $c$ 와  $e$ 의 발생을 진술하는 명제이다.

이제 쉐퍼는 이 두 개의 견해가 **체계적인 방식으로** 반례에 직면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우선 그는 **순수하게** 확률 증가에 의존하는 인과 이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확률 증가는 인과의 필요조건도 아니고 충분조건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례는 선취(premption)과 제압(trumping) 사례이다. 여기서는 (일종의 선취사례로 볼 수 있는) 제압 사례만 살펴보기로 한다. 달변가 중사와 말더듬이 소령이 동시에 “돌격!”이라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서 하사는 돌격했다. 이 경우 하사 돌격의 원인은, 군대의 계급 구조상, 소령의 명령이다. 그러나 소령의 명령은 하사 돌격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커녕 확률을 낮춘다. 왜냐하면 소령의 명령보다 중사의 명령이 더 명확하게 들릴 것이므로 소령이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돌격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확률-증가는 없지만 과정-연결은 존재하는 경우이다. 확률 증가는 인과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는 흐지부지(fizzing) 사례와 중복(overlapping) 사례이다. 여기서는 (일종의 흐지부지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중복 사례만 살펴보기로 한다. 시점  $t_1$ 에 알파 부와 차단된 공간에) 우라늄238 원자 하나와 라듐226 원자 하나가 있었고, 조금 후  $t_2$ 에 토륨234 원자 하나, 알파 입자 하나, 그리고 라듐<sup>226</sup><sup>13)</sup> 하나가 있었다. 이 경우  $t_2$ 에서의 알파 입자의 존재 원인은 분명 우라늄238 원자의 존재와 그것의 알파 붕괴이며  $t_1$ 에서의 라듐226 원자의 존재는 그 알파 입자의 존재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라듐<sup>226</sup><sup>13)</sup> 가 알파 붕괴했다면  $t_2$ 에는 라듐226 원자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라돈222 원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t_1$ 에서의 라듐226 원자의 존재는  $t_2$ 에서의 알파 입자의 존재의 확률을 높여준다. 라듐226 원자의 알파 붕괴의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확률 증가는 있지만 과정 연결은 없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쉐퍼는 **순수하게** 과정 연결에 기반한 인과 이론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과정 연결이 인과의 필요조건도 아니고 충분조건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례는

<sup>13)</sup> Salmon (1984), Dowe (2000), Ehring (1997).

비연결(disconnection), 즉, 흔히 “이중 방해(double prevention)”로 불리는 사례이다. 여기서는 쉐퍼의 예가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리고 뒤에 나올 홀의 논변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통해 살펴보자 한다. 철수가 적국의 군사 목표를 폭격하기 위해서 폭격기를 몰고 작전 수행에 나섰고, 영수는 전투기를 몰고 철수의 폭격기를 엄호했다. 이때 적국의 전투기가 철수의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접근했고 영수는 미사일을 발사해 적국의 전투기를 요격했으며, 철수는 무사히 폭격 임무를 완수했다. 이 경우 영수의 적국 전투기 요격은 폭격의 성공의 한 원인이 된다. 영수가 적국 전투기를 요격하지 않았다면 적국 전투기가 철수의 폭격기를 요격했을 것이고 따라서 폭격은 실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수의 요격 사건과 철수의 폭격 사건 사이에는 물리적 과정을 통한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사건은 동떨어진 장소에서 연결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확률-증가는 있지만 과정 연결은 없는 경우이다. 과정 연결이 인과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례는 흔적(trace) 사례이다. 철수가 돌을 창문에 집어 던져서 창문이 깨졌다. 이 과정을 영수가 옆에서 지켜봤다. 이 경우 영수의 행동은 창문이 깨지는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영수로부터 창문이 깨지는 사건을 연결하는 많은 (사소한) 물리적 과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영수가 낸 숨소리가 만드는 파장이 창문이 깨지는 사건과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을 수 있다. 이런 미미한 흔적은 우리가 인과적으로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물리적 과정을 통한 연결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경우는 확률 증가는 없지만 과정 연결은 있는 경우이다.

이상의 반례들을 통한 논의를 종합해서 쉐퍼는 이런 (확률-증가나 과정-연결 가운데 하나만 존재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한) 체계적인 반례 생성방식이 바로 순수하게 확률 증가에 의존하는 이론이나 순수하게 과정 연결에 의존하는 이론을 버리고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이론을 만들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 2.2 홀의 논변

앞서 지적된 것처럼 홀은 인과에는 의존 개념과 산출 개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의존은 단순히 전적으로 구분되는 사건들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성이다. 홀에 따르면 의존 개념과는 달리 산출 개념은 매우 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는 산출은 기본적으로 발생시킨다(generate)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구분은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종종 부과하는 다음의 다섯 개의 논제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 (1) 이행성(transitivity): 사건  $c$ 가 사건  $d$ 의 원인이고,  $d$ 가 사건  $e$ 의 원인다면  $c$ 는  $e$ 의 원인이다.
- (2) 국지성(locality): 원인들은 인과적 매개자들의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계열을 통해서 결과들과 연결된다.
- (3) 내재성(intrinsicness): 어떤 과정의 인과적 구조는 (법칙과 더불어) 그것의 내재적인, 비인과적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 (4) 의존성(dependence): 전적으로 구분되는 사건들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성은 인과의 충분조건이다.
- (5) 생략(omission): 생략, 즉 사건이 발생하는데 있어서의 실패는 야기하거나 야기될 수 있다.

이 다섯 개의 논제는 우리의 인과에 대한 선이론적 직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인과에 관한 철학적 이론들에서 종종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홀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논제들 가운데서 의존성과 생략은 그의 의존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행성, 국지성, 그리고 내재성은 그의 산출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14)</sup> 이렇게 보면 쉐퍼의 확률-증가 견해와 과정-연결 견해의 구분과 홀의 의존과 산출의 구분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구분이다. 반사실적 의존성이라는 것은 쉐퍼의 확률-증가의 결정론적인 형태이며 반대로 쉐퍼의 확률-증가는 홀의 의존의 비결정론적 확장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홀의 산출 개념이 국지성과 연결된 것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산출 개념은

---

<sup>14)</sup> Hall (2004), pp. 225-26.

쉐퍼의 과정-연결 개념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정-연결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행성 원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보다 그럴듯해진다.

그러나 인과 개념의 비통일성에 대한 훌의 논변은, 쉐퍼의 경우와는 달리, 앞에서 소개된 바 있는, 이중 방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훌의 아이디어를 그 핵심만 밀하면, 이중 방해 사례를 잘 살펴볼 경우, 위의 다섯 가지 논제들 가운데 의존 개념의 핵심부에 있는 의존성 논제는 산출 개념의 핵심부에 있는 이행성, 국지성, 내재성 논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섯 논제, 특히 의존성 논제가 인과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개의 별개의 인과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훌의 논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지성과의 충돌>

이중 방해 사례가 의존성과 국지성 논제가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쉐퍼의 논변을 살펴보면서 이중 방해 사례가 반사실적 의존성이 존재하지만 과정 연결은 존재하지 않는 사례라는 것을 확인했다. 의존성 논제에 따르면 반사실적 의존성이 존재하면 인과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국지성 논제에 따르면 과정 연결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중 방해 사례에서 의존성 논제와 국지성 논제는 충돌한다.

#### <내재성과의 충돌>

의존성을 받아들일 경우 위의 이중 방해 사례에서 철수 폭격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역사(S)에는 영수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수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면 적국의 전투기는 요격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철수의 폭격기가 요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수의 미사일 발사가 철수의 폭격 성공의 인과적 역사에 포함될 것인지는 S에 **외재적인** 요소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적국 전투기에는 영수의 미사일 발사 → 후에 폭발하게 되

어 있던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영수가 미사일을 발사하건 그렇지 않건 그 적국 전투기는 폭발하게 되어 있었고 철수의 폭격은 성공하게 되어 있었다.

즉, 의존 개념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어떤 결과의 원인에 포함될 것인지는 반사실적 의존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반사실적 의존성은 외재적인 사실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과정의 인과적 구조가 내재적인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내재성 원리는 의존 개념과는 충돌한다.

#### <이행성과의 충돌>

이중 방해 사례는 왜 의존성이 이행성과 충돌하는지도 보여준다. 이제 적국 전투기 조종사의 알람이 정시에 울리는 사건을 a라고 하자. a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국 전투기 조종사는 정시에 출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결과 철수의 폭격기가 다가올 때 공중 순찰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영수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건(b)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수가 허공에 미사일을 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수가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면 적기는 요격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폭격의 성공(c)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건 b는 사건 a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고, 사건 c는 사건 b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이 경우 의존성에 따르면 a는 b를 야기하고 b는 c를 야기한다. 이 결과에 이행성을 적용하면 a는 c를 야기한다는, 즉 적국 전투기 조종사의 알람이 정시에 울리는 사건이 철수 폭격의 성공을 야기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즉, 의존성은 이행성과 충돌한다.

의존 개념이 산출 개념과 충돌한다는 것을 보인 후 홀은 위의 다섯 가지 논제가 인과 개념에 위낙 중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쉽게 포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충돌을 목격한 후 가야 할 길은 두 개의 근본적으로 상이한 인과 개념을 모두 받아들여서 인과 개념이 통일된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이 홀의 생각이다.

### 3. 인과와 설명

이제 필자는 2절에서 간략하게 소개된 쉐퍼의 논변과 홀의 논변이 모두 인과와 설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는 논변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인과와 설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쉐퍼와 홀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결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과정-연결 또는 산출에 기반한 인과 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필자는 설명이 과정-연결 또는 산출보다는 의존 또는 확률-증가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고자 한다. 우선 쉐퍼의 논변을 살펴보자. 쉐퍼의 논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과정-연결이 인과에 필요조건도 아니고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는 부분이다. 우선, 과정-연결이 인과의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중 방해 사례를 살펴보자. 그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중 방해 사례에서 영수의 적국 전투기 요격(c)이 철수의 폭격 성공(e)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모든 인과의 내포들 (connotations)이 전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5)</sup>

- (a) c는 e의 확률을 높인다.
- (b) e는 c에 반사설적으로 의존한다.
- (c) c는 e에 설명적으로 유관하다.
- (d) c를 아는 것은 e로의 추론을 보증한다.
- (e) c는 e를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 (f) c는 e에 도덕적 책임과 관련하여 유관하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 사실이 **인과와 설명이 분리되기를 바라는** 과정-연결 이론의 옹호자들에게 어떤 곤란을 야기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sup>15)</sup> Schaffer (2001), pp 82-83.

우선 위의 (a), (b)는 확률-증가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인과와 연결된 내포이겠지만 과정-연결 이론의 옹호자들에게 그 것이 반드시 인과의 내포라고 인정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우리(그리고 쉐퍼)는 이미 확률 증가가 인과의 충분조건도 아니고 필요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과정-연결 이론의 옹호자들은 많은 경우에 과정-연결은 확률-증가와 겹치며, 이런 현상 때문에 확률-증가는 인과의 내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c)는 인과와 설명이 분리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과의 내포라고 인정될 이유는 없다. 마찬가지로 과정-연결 이론가들은 많은 경우에 과정-연결은 설명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과와 설명이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설명이 자체로 인과의 내포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d)-(f)가 갖는 문제들은 모두 (a)-(c)의 문제들로 환원된다. 우선, (d)는 다음의 이유로 그것이 왜 인과의 내포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확률 증가가 인과의 내포이고 추론의 보장은 확률 증가를 보장하기 때문이라면, 이 경우 (d)는 (a), (b)와 동일한 문제를 갖는다. 반대로, 험펠의 D-N 모델이나 키쳐의 통일 이론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설명이 연역적(또는 귀납적) 추론이고 설명이 인과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이 경우 (d)는 (c)와 동일한 문제를 갖는다.<sup>16)</sup> (e)는 인과에 대한 조작주의적 견해(manipulationist view)를 뒷받침하고 있는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에 대한 조작주의는 반사실적 의존성 이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는 (a), (b)와 동일한 문제를 갖는다.<sup>17)</sup> 마지막

<sup>16)</sup> Hempel & Oppenheim (1948), Kitcher (1989).

<sup>17)</sup> 예를 들어 사이러스는 다음과 같이 조작주의 이론을 성격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과에 대한 향상된 반사실적 분석을 제공하려는 두 개의 주목할 만한 시도가 있었다. 하나는 멘찌와 프라이스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드워드와 하우스만에 의한 것이다. 이 두 이론은 모두 반사실문을 핵심적으로 사용한다. 또 두 이론은 모두 인과를 조작이라는 개념과 연결한다.” Psillos (2002), p. 101. 가장 대표적인 조작주의 인과 이론의 옹호

막으로 (f)도 그것이 왜 인과의 내포로 여겨져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논증되듯이 도덕적 책임의 문제는 인과보다는 설명에 보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과와 설명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f)는 (c)와 동일한 문제를 갖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인과와 설명을 분리하고자 하는 과정-연결 이론의 옹호자들에게 있어서 (a) - (f) 가운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를 제공해 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논증이 생략(omission), 또는 부재(absence)의 사례에 대해서도 제시될 수 있다. 종종 부재나 생략은 다른 것과 반사실적 의존성의 관계를 가지며, 설명적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내가 물을 주는 사건의 부재가 내가 키우는 화초가 말라 죽은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과적 설명 이론에 대한 전제를 거부한다면, 이것이 반드시 부재가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즉 이중 방해나 부재 사례는 새먼처럼 인과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이는 과정-연결 이론가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만, 도우처럼 인과적 설명이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18)</sup>

다음으로 쉐퍼가 과정-연결이 인과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물리적 연결에는 많은 사소한 연결들이 있는데, 이들은 진정한 인과적 연결이라고 볼 수 없는 무관한 연결들(irrelevant connections)이라는 것이다.<sup>19)</sup> 이 문제와 관련된 쉐퍼의 언급은 흥미롭다. 그는 다음의 새먼의 주장에 주목한다. “히치콕의 분석의 결과로, 나는 이제 인과적 과정은 통계적 유관성이 결여할 경우 설명적 도입을 결여한다고 말한

---

자인 우드워드의 이론은 다음을 참고할 것. Woodward (2003). 쉐퍼는 우드워드의 이론도 루이스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선취나 제압의 문제에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Ibid., p. 383 (미주 45.).

18) 도우는 인과와 준인과(quasi-causation)를 구분하며, 준인과의 경우 설명적 힘은 있지만 진정한 인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생략이나 이중 방해의 사례는 인과의 사례가 아니라 준인과의 사례이며 따라서 그의 과정-연결 인과이론에 대한 반례가 되지 않는다. Dowe (2001), p. 217.

19) Schaffer (2001), p. 84.

다.” 이 주장에 쇼퍼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인과와 설명이 (특히 새면에게) 밀접하게 얹혀져 있다는 것이 주어질 경우, 동일한 것이 인과에 대해서도 성립한다.”<sup>20)</sup>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쇼퍼는 무관한 연결들의 문제가 (새면식의) 과정-연결 인과 이론과 결합한 인과적 설명이론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과정-연결 인과이론 자체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새면처럼) 인과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성립한다. 우리가 설명과 인과를 분리할 경우 이런 생각은 더 이상 강력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나중의 글에서 쇼퍼 자신이 다음과 같은 방식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무관한 연결들은,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이해 가능할 정도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인과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에 반대되는 우리의 직관은 데이빗슨 스타일로 인과적인 용어와 설명적인 용어를 혼동하는 것으로 펼쳐질 수 있다.”<sup>21)</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경우 쇼퍼의 논변이 인과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연결 이론가들에게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동일한 방식의 비판이 인과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확률-증가 이론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확률-증가가 인과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주장된 선취 사례나 제압 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위에서 소개된 제압 사례에서 하사 돌격의 원인이 소령의 명령이라는 직관이 인과와 설명의 연결에 대한 전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사 돌격의 원인이 소령의 명령이라는 (인과적) 직관은 하사의 돌격이 발생한 것이 소령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적) 직관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묘사된 상황에서 어차피 하사는 돌격을 하게 되어 있었다. 소령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중사의 명령 때문에 하사는 돌격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하사가 돌격을 한 것이 소령의 명령 때문

20) Ibid., p. 84 (각주 23).

21) Schaffer (2014).

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설명적 직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의 대화를 생각해 보자.

칠수: 대한 제국이 외교권을 잃어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들이 을사늑약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영수: 이완용 등의 동의가 우리의 외교권 상실에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맞지만, 이완용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완용 등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일제는 우리의 국권을 침탈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수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이완용 등의 동의가 실질적 국권 상실의 직접적 원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갖는 설명적 도입에는 반대(또는 최소한 주저)하고 있다. 그리고 영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한말 당시 상황이 일종의 선취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영수는 선취상황에서 선취하는 원인은 선취되는 원인의 존재 때문에 인과적 도입을 잊지는 않지만 설명적 도입에는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영수의 생각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필자의 주장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필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영수의 주장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주장이라는 것이고 이는 선취, 또는 제압과 관련된 우리의 인과적 직관은 우리가 가진 설명적 직관보다 훨씬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서의 쉐퍼의 논증이 설명적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이유는 없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명적 직관이 인과적 직관에 직접 연동되어 있다기보다는 확률 증가에 보다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확률-증가가 인과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흐지부지, 또는 중복 사례를 생각해 보자. 앞서 소개

된 중복 사례에서  $t_1$ 에서의 우라늄238 원자의 존재가  $t_2$ 에서의 알파 입자의 존재의 원인이라는 직관은 명확하며  $t_1$ 에서의 라듐226 원자의 존재가 그것의 원인일 수 없다는 직관도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그러나 라듐226 원자의 존재가 알파 입자의 존재와 전적으로 설명적으로 무관한지는, 즉 우리의 설명적 직관은 (그것에 대응하는 인과적 직관과 비교해서)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t_2$ 에서의 알파 입자의 존재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은  $t_1$ 에 알파 붕괴할 수 있는 다수의 입자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t_1$ 에 다수의 알파 붕괴가 가능한 입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t_2$ 에 알파 입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적으로 유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t_1$ 에 알파 붕괴의 가능성을 가진 다수의 입자가 존재할 경우  $t_2$ 에 알파 입자가 존재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t_1$ 에 라듐226 원자의 존재는 최소한 간접적으로  $t_2$ 의 알파 입자의 존재에 설명적으로 유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설명적 직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의 대화를 생각해 보자.

철수: 일본은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노벨 물리학 수상자를 배출했을까?

영수: 그것은 일본에 도쿠라 요시노리를 비롯해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수준의 물리학자들이 이미 수십 명 있었기 때문이야.

여기서 영수는 도쿠라 요시노리 등의 과거 물리학적 업적이 2014년이나 2015년의 일본인의 노벨 물리학 수상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도쿠라 요시노리는 노벨상 수상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의 물리학적 업적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일본의 노벨상 수상에 설명적으로 유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필자는 여기서 우리의 설명적 직관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주장은 이 경우 설명적 직관은 충분히 명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적 명확한 인과적 직관을 갖는다는 것이다.<sup>22)</sup> 이는 이 반례가 설명적 직관에 호소하고 있지는 않다는,

또는 이 반례가 인과적 설명이론에 기반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한 번 이 사실은 설명적 직관이 인과적 직관에 직접 연동되어 있기보다는 확률증가에 보다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가 옳다면, 순수한 과정-연결 이론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순수한 확률-증가에 대한 셰퍼의 공격은 인과적 설명이론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A. 확률-증가가 인과의 분석에서 중요하다는 (즉 순수한 과정-연결 이론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셰퍼에게 있어서, 확률-증가가 설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과 설명이 인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 B. 반면, 과정-연결이 인과의 분석에서 중요하다는 (즉 순수한 확률-증가 이론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C. 설명은 과정-연결보다는 확률-증가에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이다.

이제 홀의 논변이 왜 인과적 설명이론에 기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22) 어떤 사람들은 인과와 관련해서도 필자가 설명에 관해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즉,  $t_1$ 에 알파 붕괴할 수 있는 다수의 입자가 있었다는 것이  $t_2$ 에 알파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t_1$ 에서의 라듐226 원자의 존재가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도쿠라 요시노리 등의 과거 물리학적 업적이 같은 방식으로 2014년과 2015년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주장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인과에 대한 직관이 분명한지에 대해서 의심한다. 최소한 이 경우 우리의 설명적 직관은 인과적 직관보다 훨씬 명확하다.

홀은 자신의 의존과 산출 개념 가운데 일견 인과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 산출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동조한다.

세 번째, 보다 [저자, 즉, 홀의 주장에] 공감적인 비판은 산출과 의존 사이의 구분은 받아들이되 의존이 일종의 인과라고 인정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산출이 어떤 의미에서 인과 개념에 보다 “중심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반대에는 어떤 옳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증거를 제시하자면, [선취 사례같이] 의존은 없지만 산출은 존재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제시될 경우 우리는 주저 없이 그 산출자를 원인으로 분류하는 반면, [이중 방해 사례같이] 산출은 없지만 의존은 존재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제시될 경우 진정한 인과적 관계가 현시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최소한 우리 가운데 일부의 직관은) 보다 쉽게 혼들린다.<sup>2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은 의존도 충분히 인과의 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는 이것[위의 비판]이 전적으로 구분된 사건들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이 일종의 인과적 관계라는 것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의존이, 예를 들어, 설명과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종류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생략의, 또는 생략에 의한 인과를 어떻게 일종의 산출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사실적 의존성이 그런 “부정적 사건들”이 그 안에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적절한 인과적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홀이 여기서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명백히 인과적 설명 이론 또는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에 의존하고 있다. 적어도 홀이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설명과 인과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립할 수 없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홀의 두 번째 이유도 설명과 인과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도우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립하지 않

---

<sup>23)</sup> Hall (2004), p. 256.

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도우와 같은 사람들은 생략의 또는 생략에 의한 인과라는 것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4)</sup> 도우는 생략에 의한 “인과”는 사실 인과가 아니라 인과적 도입 없이 설명적 도입만 있는 준인과(quasi-causation)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훌의 논변은 인과와 설명을 구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호소력을 가질 수 없는 논변이다. 이는 다시 한 번 설명은 의존(또는 확률-증가)과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설명과 산출(또는 과정-연결) 사이의 관계는 별로 명백하지 않다는 필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의존 개념에 기반한 인과 이론은 설명과 인과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받아들여야 살아남고, 반대로 산출 개념에 기반한 인과 이론은 설명과 인과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부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 4. 도덕적 책임

3절에서 필자는 설명은 의존(또는 확률-증가)과 밀접하게 연결된 반면, 설명과 산출(또는 과정-연결) 사이의 연결은 별로 밀접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다. 필자는 의존 관계가 존재하지만 산출 관계는 존재하지 않은 곳(이중 방해, 생략 사례들)에서 설명적 관계는 명확한 반면 의존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산출 관계는 존재하는 곳(선취제 암 사례들)에서 (비록 인과 관계는 충분히 명확하지만) 설명적 관계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셰퍼의 순수하게 과정-연결에 기반한 인과 이론의 공격이나, 훌의 의존 개념의 인과 개념으로의 옹호 논변은 특정한 논제, 즉 인과적 설명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약점을 갖는다.

여기서 필자는 비슷한 논변을 통해서 도덕적 책임이 인과보다는 설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제 설명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명확하지

<sup>24)</sup> 비비도 도우의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Beebee (2004).

않은 사례, 대표적으로 이중 방해나 생략 사례를 생각해 보자. 앞서 논의된 이중 방해 사례에서 영수의 적기 요격이 철수의 폭격 성공에 도덕적 책임과 관련하여 유관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철수는 분명 폭격 성공과 관련하여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부도덕한 일이라면)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제 반대로 인과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설명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사례, 대표적으로 선취 사례를 생각해 보자. 앞서 논의된 이완용과 관련된 선취 사례에서 이완용이 국권 상실과 관련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도덕적 책임이 인과보다 설명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영수 같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수: 나도 이완용 등이 대한 제국의 국권 상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 그러나 당시 대한 제국과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완용 등에게만 책임을 물아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대한 제국이 그 꼴이 되도록 만든 이완용 이전의 위정자들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영수는 이완용 등의 행동이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에 대해서 갖는 설명적 직관이,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선취적 구조 때문에 약화될 경우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직관도 어느 정도는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 주장은 이것이 철학적으로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의 문제와 별개로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 이는 우리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직관이 상당한 정도로 설명적 직관과 연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선취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과적 직관은 전혀 약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 책임에 대한 직관이 인과적 직관보다는 설명적 직관과 보다 연동한다는 생각이 옳은지를 검사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설명은 인과와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우리의 도덕적 책

임에 대한 직관과 연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설명은 그 적절성의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인과에서는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b보다 c의 더 적절한 원인이다.”와 같은 표현은 상당히 어색하게 들린다. 또 “a가 c를 야기하는 것보다 b는 c를 더 잘 야기한다.”와 같은 표현도 어색하게 들린다. 기본적으로 인과는 이거나 아니거나(on/off)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a가 b보다 c에 대한 더 적절한 설명이다.”나 “a가 c를 설명하는 것보다 b는 c를 더 잘 설명한다.”와 같은 표현은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설명이 갖는 이런 특징은 책임 귀속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의 사례에서 영수는 대한 제국의 국권 상실의 책임이 이완용에게도 있지만 보다 적절하게는 대한 제국(후기 조선)을 내적으로 봉괴시킨 그 이전의 위정자들에게 보다 큰 책임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옳으냐의 문제와 별개로 이것은 할 수 있는 종류의 주장이며, 바로 이 사실이 도덕적 책임은 인과보다는 설명에 연동한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준다.

다음으로 설명적 관계는 인과 관계와는 달리 매우 복잡한 다중 구조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적 관계는 다음의 네 개의 차원을 가져야 한다. (i)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ii) 설명적 이해 또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 (iii)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 (iv)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sup>25)</sup> 이들 가운데서 현재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와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이다. 인과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 화용론적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설명적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 화용론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다. 즉, 동일한 (유형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적절한 문맥에서는 설명적이게 되고 다른 문맥에서는 설명적이지 않게 되는 경우는 흔하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맥락에서 화재의 발생을 설명할 때 화재 지점에 산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비록 그것이 인과적으로 화재의 발생에 대해서 유관한 것이 틀림없지만 설명적으로는 무관하다. 하지만 동일

<sup>25)</sup>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이재호 (2012).

한 산소의 존재와 화재의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는 산소가 없이 관리되어야 하는 실험실 내에서의 화재의 발생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과적으로 유관할 뿐만 아니라 설명적으로도 유관하다. 설명이 갖는 이런 화용론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철수가 2015년에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e)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하나의 원인은 1990년에 철수의 어머니가 철수를 낳는 사건(c)이다. 이는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던 그럴듯하다. e는 c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며 c와 e를 연결하는 물리적 과정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수가 2015년에 식중독에 걸린 것이 철수의 어머니가 1990년에 철수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그럴듯한 두 개의 화용론적 방식이 있다. 우선, 우리는 설명적 관계가 우리의 문맥 의존적 배경 지식에 상대적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철수가 2015년에 식중독이 걸린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철수가 그 이전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왜 철수는 2015년에 식중독에 걸렸는지를 궁금해 할 때 그들의 설명적 갈증은 그가 1990년에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지식에 의해서 해소될 수 없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화용론적 방식은 대조의 초점 현상에 호소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설명에는 대조의 초점 현상이 매우 두드러진다.<sup>26)</sup> 예를 들어 누가 “왜 철수는 학교에 뛰어갔는가?”라

---

26) 인과에도 대조의 초점이 있다는 생각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음의 논문을 볼 것. Maslen (2004).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주류적인 생각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런 생각은 인과를 의존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럴듯하지만 산출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그럴듯한 생각은 아니다. 이에 반해서, 비록 어떤 철학자들은 모든 설명이 대조의 초점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철학자들은 대조적 설명과 그렇지 않은 설명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명이 대조의 초점을 갖는다는 생각은 일반화되어 있다. 모든 설명이 대조의 초점을 갖는다는 견해는 다음을 참조할 것. Van Fraassen (1980), ch.5.

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은 ‘학교에’에 대조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고 ‘뛰어’에 대조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철수가 오늘 학교에서 들을 수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참일 경우) 좋은 대답(설명)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 그것은 좋은 대답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철수가 오늘 늦잠을 자서 지각할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 좋은 대답이 될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좋은 대답이 된다. 이렇듯 설명적 관계의 성립은 주어진 문맥 하에서 어떤 대조의 초점이 발생하는지에 상대적이다. 이제 이것을 위의 철수가 2015년에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에 적용해 보자. 우리가 “왜 철수는 2015년에 식중독에 걸렸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가장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것은 “왜 철수는 2015년에 건강하지 못하고 식중독에 걸렸는가?”라는 대조의 초점을 갖는 질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으로 이해되었을 경우 1990년에 철수의 어머니가 철수를 낳았다는 것은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다. 철수가 2015년에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과 철수가 2015년에 식중독에 걸리는 것의 차이가 1990년 철수의 어머니가 철수를 낳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c와 e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왜 이들 사이에 대해서는 설명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c와 e사이에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성립할지라도 이들 사이에, 어떤 화용론적 고려 때문에, 설명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sup>27)</sup>

이제 철수가 2015년에 식중독에 걸린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철수의 어머니 책임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이다.<sup>28)</sup> 이 사실은 도덕적 책임이 인과보다 설명에

27) 필자가 여기서 인과적 관계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명이 의존과 주로 관계되어 있다는 필자의 주장에서 드러나듯이 필자는 인과적 관계보다는 의존적 관계가 보다 나은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후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여기서 c와 e사이에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경우 c와 e사이에 의존 관계와 산출 관계가 모두 성립하기 때문이다.

보다 연동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우리가 책임적 관계를 귀속하는 관계는 인과관계보다 그 외연에 있어 매우 작으며 그 외연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보다는 설명적 관계와 중첩된다.

## 5. 한계

필자는 지금까지 설명이 산출(또는 과정-연결)보다는 의존(또는 확률-증가)에 더 관련되어 있고 책임은 인과보다 설명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논증했다. 필자는 이만큼은 충분히 잘 논증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필자의 논증들이 설명이 산출 자체와는 무관하다거나 책임이 인과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하는가? 필자의 논증이 책임이 인과 자체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홀을 따라서 의존도 인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책임이 인과 자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책임은 설명과 의존을 경유해 인과 개념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논의에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의 질문, 즉 필자의 논증들이 설명, 따라서 도덕적 책임이 산출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느냐고 이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이런 보다 강한 주장에 반대하는 직관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필자의 논변이 갖는 이런 한계를 지적하고 그 한계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의 생각에 이런 한계는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그 한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필자가 다음 절에서, 그리고 이 논문의 후속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필요도 없다.

우선, 선취 또는 제압 사례를 생각해 보자. 위의 제압 사례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우리는 하사의 돌격이 소령의 명령 때문이라는

28) 물론 여기서 우리는 철수의 어머니가 2015년에 철수에게 해준 밥이 식중독 균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식의 시나리오는 배제하고 있다.

(설명적) 직관을 아주 명백하게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설명적 직관을 어느 정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하사의 돌격이 소령의 명령 때문이라는 직관은 최소한 그것이 중사의 명령 때문이라는 직관보다는 강하다. 이 두 사실은 일견, 설명은 의존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필자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령의 명령은 하사 돌격의 확률을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첫 번째 사실을 필자의 편에서 해소(explain away)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소령의 명령은 최소한 **잠재적으로** 하사 돌격의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중사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소령의 명령은 하사 돌격의 확률을 극적으로 올려준다. 즉, 소령의 명령은 자체적으로는 하사 돌격의 확률을 높이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중사의 명령 때문에 그 성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소령의 명령이 설명적인 도입을 갖는다는 우리의 직관이 설명이 확률-증가하고만 관련이 된다는 생각에 대한 반례라는 것이 충분히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해소가 단순히 임시방편적인(ad hoc) 대응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선취 또는 제압 사례를 위의 혼적 사례와 비교해 보자. 혼적 사례의 경우 우리가 그것이 인과적 도입을 갖는다고 받아들여도 설명적 도입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창문이 깨지는 사건이 영수가 낸 숨소리 때문이라는 직관을 우리는 전혀 갖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설명적 직관은 혼적의 경우 아무리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필자의 편에서 보면, 영수의 숨소리가 **잠재적으로라도** 창문이 깨질 확률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소령의 명령이나 영수의 숨소리는 모두 확률을 높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 어느 정도 설명적 힘을 갖지만 후자는 전혀 설명적 힘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된 잠재적 확률-증가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소령의 명령은 잠재적으로 확률을 증가시키는 힘을 갖지만 영수의 숨소리는 잠재적으로도 확률을 증가시키는 힘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사실은 필자에게 상당한 곤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소한) 잠재적으로 확률을 올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령의 명

령과 중사의 명령은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중사의 명령이 갖는 설명적 힘보다 소령의 명령이 갖는 설명적 힘을 직관적으로 더 분명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현상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하사 돌격의 원인이 중사의 명령이 아니라 소령의 명령이라는 것일 것이다. 이는 인과 개념이, 확률-증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느 정도는 설명적 도입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과 인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사의 돌격을 통해서 전투의 승리가 야기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우리는 소령이 모든 칭찬을 독차지해야 한다는 강한 직관을 갖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소령에게 가야 할 칭찬이 중사에게 가야 할 칭찬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직관을 어느 정도는 갖는다. 다시 한 번 이는 일견 인과 개념이, 확률-증가와는 무관하게, 책임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길은 설명이 산출보다는 의존과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추가해서 인과 개념 자체가, 따라서 산출도, 어느 정도는 설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길을 갈 경우, 우리는 쉐퍼처럼 하이브리드 인과 이론을 받아들이거나 홀처럼 인과에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후 단순하게 인과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일 좋은 동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쉐퍼 식의 하이브리드 이론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쉐퍼 자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철학자가 동의하는 것이다.<sup>29)</sup> 따라서 이런 이유로 굳이 전망이 밝지 않은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홀처럼 인과에 대한 두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 두 인과적 개념을 모두 받아들이는) 인과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많은 문제를 갖는다. 하나의 예만 들자면, 앞서 언급된 혼적 사례에서 우리는 확률-증가는 있지만 과정-연결은 있는, 하지만 설명적 도입은 **전혀 없는** 경우를 갖는다. 그러나 확률-증가와 과정-연결이 모두 설명적 도입을

---

<sup>29)</sup> 각주 7번을 참고할 것

갖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보다 나은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길은 설명이 산출보다는 의존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산출은 설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까지 받아들인 후 앞에서 언급된 산출이 설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직관을 적절히 해소(explain away)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그럴듯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앞에서 언급된 제압 사례에서 왜 우리가 소령의 명령이 하사의 돌격에 중사의 명령보다 설명적으로 더 유관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중사의 명령이 아니라 소령의 명령이 하사 돌격의 원인이라는 **명확한** (인과적) 직관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과적 관계는 설명적 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인과적 관계의 외연과 설명적 관계의 외연은 상당한 정도로 겹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인과적 관계는 설명적 관계이기도 하다는 (잘못된!) 직관도 어느 정도는 갖는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사의 돌격이 중사의 명령 때문이기보다는 소령의 명령 때문이라는 **상당한 정도의** (설명적) 직관을 갖는다.

쉐퍼와 (특히) 홀의 논변이 잘 보여주듯이 우리의 인과와 설명, 그리고 책임에 대한 직관은 대단히 혼돈스럽다. 우리의 직관은 어느 경우에는 대단히 명확하지만 많은 경우 극도로 불명료하며 내적으로 일관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의 선이론적 직관을 있는 그대로 모두 살펴줄 수 있는 인과, 설명,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직관은 어느 부분에서 설명되기보다는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경우 전체적인 득실을 따져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한다. 결국, 설명이 산출보다 의존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전체적인 득실을 따져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선호될 만한 길은, 설명은 산출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개념이고 설명이 인과와 연결된다면 그것은 의존을 인과라고 보는 것을 통해서라고 주장하는 길이다.

## 6. 결론

필자는 지금까지 설명이 산출(또는 과정-연결)보다는 의존(또는 확률-증가)에 보다 관련되어 있으며, 책임은 인과보다 설명에 보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논증했다. 더 나아가 필자는 설명은 산출과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도 논증했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필자는 이 결론이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중대한 함축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그 함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 논문의 후속 논문과의 연결을 위해서, 이 논문의 결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분석철학적 전통 안에서의 표준적인 자유의지에 관한 논의에서 자유의지는 도덕적 책임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된 자유의지이다.<sup>30)</sup> 따라서 어떤 행동이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냐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이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우리는 이제 도덕적 책임의 문제는 설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설명은 의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로부터 따라 나오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결론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에 관해서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또는 최소한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 행동이 그나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것과 설명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 설명적 관계는 인과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둘을 종합할 경우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다음이다.

30) 이런 이유로 스피노자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 자유가 결정론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석철학자는 그를 자유의지에 관한 양립 불가능론자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스피노자에게 있어 인정되는 자유는 도덕적 책임과는 무관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Pereboom (2007), p. 85.

(자유의지를 위한) 설명적 의존관계 조건: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그나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설명적 의존관계를 맺어야 한다**.<sup>31)</sup>

여기서 단순한 ‘의존관계’ 대신에 ‘설명적 의존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존관계는, 앞의 논의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설명적 관계라기보다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설명적 의존관계 조건이 왜 자유의지에 관한 강한 양립 불가능론을 지지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남았고, 이는 이 논문의 후속 논문에서 이루어질 작업이다.

---

31) 필자는 5절에서 설명이 **의존하고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런 의심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옳은 것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설령 옳은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필자의 프로젝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설명과 산출 사이의 관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리고 최소한 잠재적 의존성을 동반하지 않는 산출 관계가 설명적 도입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좋은 증거가 있으므로, 우리는 설명적 의존관계 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화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위한) 설명적 의존관계 조건\*: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나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최소한 잠재적) 설명적 의존관계를 맺지 않을 경우, 그 행동이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참고문헌

- 선우환 (2002), 「설명의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 모형」, 『철학연구』 59권, pp. 93-119.
- 이재호 (2012), 「설명적 관계의 다중구조와 설명이론의 정체성」, 『과학철학』 15권 2호, pp. 1-24.
- 최성호 (2014), 「인과와 사건본질선우환 교수에 대한 답변」, 『철학적 분석』 30권, pp. 173-202.
- Beebee, H. (2004), "Causing and Nothingness", in Collins, J., Hall, N. & Paul, L. A. (eds.),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Cambridge, Mass.: MIT Press, pp. 291-308.
- Beebee, H., Hitchcock, C. & Menzies, P. (2009), *The Oxford Handbook of Caus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rd, A. (2007), *Nature's Metaphysics: Laws and Proper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S. (2007), "Causes and Probability-Raisers of Processe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5: pp. 81-91.
- Davidson, D. (1967), "Causal Relations", *Journal of Philosophy* 64(21): pp. 691-703.
- Dowe, P. (2000), *Physical Causa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A Counterfactual Theory of Prevention and 'Causation' by Omission",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9(2): pp. 216-26.
- Ehring, D. (1997), *Causation and Persistence : A Theory of Caus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E. J. (2004), "Two Concepts of Causation", in Collins, J., Hall, N. & Paul, L. A. (eds.),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Cambridge, Mass.: MIT Press, pp. 225-76.
- Hempel, C. & Oppenheim, P. (1948), "Studies in the Logic of

- Explanation”, *Philosophy of Science* 15: pp. 135-75.
- Hume, D., Selby-Bigge, L. A. & Nidditch, P. H.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2nd ed.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Kitcher, P. (1989), “Explanatory Unific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in Kitcher, P. & Salmon, W. C. (eds.), *Scientific Expla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410-505.
- Lewis, D. (1983), “New Work for a Theory of Universal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1(4): pp. 343-77.
- Maslen, C. (2004), “Causes, Contrasts, and the Nontransitivity of Causation”, in Collins, J., Hall, N. & Paul, L. A. (eds.),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Cambridge, Mass.: MIT Press, pp. 341-58.
- Pereboom, D. (2001), *Living without Free Will*,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Hard Incompatibilism”, in *Four Views on Free Will*, Blackwell, pp. 85-125.
- Psillos, S. (2002), *Causation and Explanation*,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almon, W. C. (1984), *Scientific Explan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ffer, J. (2001), “Causes as Probability Raisers of Processes”, *Journal of Philosophy* 98(2): pp. 75-92.
- \_\_\_\_\_ (2008), “Causation and Laws of Nature: Reductionism”, in Sider, T., Hawthorne, J. & Zimmerman, D. W. (eds.), *Contemporary Debates in Metaphysics*, Malden, MA: Blackwell Pub. pp. 82-108.
- \_\_\_\_\_ (2014), “The Metaphysics of Causation”, in Zalta, E. N.

-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Shoemaker, S. (1980), “Causality and Properties”, in Taylor R. & Van Inwagen, P. (eds.), *Time and Cause : Essays Presented to Richard Taylor*, Dordrecht: Reidel Pub., pp. 109-35.
- Van Fraassen, B. C. (1980), *The Scientific Im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odward, J. (2003), *Making Things Happen : A Theory of Causal Expla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 투고일	2016. 02. 12
심사 완료일	2016. 03. 13
게재 확정일	2016. 03. 23

## Two Concepts of Causation, Explanation, and Moral Responsibility

Jaeho Lee

---

Although there are many theories of causation which are seriously discussed among 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ers, it is often claimed that there are some salient tendencies among these theorie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such claims by J. Schaffer and N. Hall. After I examine their claims, I will suggest that only a particular factor of causation, namely dependence are closely related to the notion of explanation and moral responsibility. After that, I will argue that this discovery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philosophical debates concerning free will.

**Keywords:** causation, dependence, production, explanation, moral responsibility